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사항 미이행 규탄
8년 만에 최대폭 인상이 고작 3.0%
저연차 청년공무원 임금 추가 인상 요구
‘인사혁신처 공무원 봉급표’ 확정 시 까지 투쟁 계속



어제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내년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한다고 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공무원 보수 인상을 억제하였고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4년 연속 물가상승률을 밀도는 보수 인상에 실질임금이 줄어들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이 2020년 90%에서 올해 82.8%로 낮아져 보수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하고, 온갖 언론은 8년 만에 최대폭 상승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7%)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써 ‘박봉’에 공직사회를 떠나는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의도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노동조합(강교노, 위원장 최승덕)은 전국의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와 힘을 모아 공무원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지난 6월 25일 국회에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7월 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 쟁취 총궐기대회, 공무원보수위원회 전체회의장 앞 집회, 8월 7일 정부세종청사 기

획재정부 앞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사항 이행 촉구 총궐기대회**, 8월 26일 **용산대통령실 앞 집중투쟁** 등에 직접 참가하여 공직의 가치를 인정받고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위한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강교노를 비롯한 공무원 노동조합의 당초 요구는 그동안의 실질임금 감소를 해소하고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임금 기본급 31만 3천원 정액 인상 ▲하위직 정근수당 인상 ▲점심값 1만원을 위한 정액 급식비 8만원 인상 ▲직급 보조비 3만원 인상**을 요구하였다. 정부(인사혁신처)와 공무원 노동조합, 전문가위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3차에 걸친 전체회의 결과 **▲기본급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인상 ▲정액급식비 1만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2만 5천원 인상 ▲저연차 공무원 기본급, 정근수당 지급율 추가 인상**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지난 5년간 공무원보수위에서 결정한 공무원 임금 인상안을 기재부에서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칼질하여 삭감한 전례가 있었기에 우리는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이행과 ▲공무원보수위 위상 강화법 제정 ▲청년 공무원 특별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기재부에 공무원보수위 결정 사항을 수용하라며 대정부 투쟁을 했지만 기재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보수 인상을 3%로 결정하였다.

※ 보수 3% 인상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보조비를 합친 보수에 대한 처우 개선율이며 연말에 인사혁신처가 2025년 공무원 봉급표를 확정·발표할 때 직급에 따라 인상률을 일부 차등 조정할 수 있음

강교노는 저연차 청년 공무원이 낮은 보수로 인해 스스로 공직을 떠나지 않도록 인사혁신처가 내년도 공무원 봉급표에 반영할 때까지 계속하여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다.

강교노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여 위상을 강화하라!

하나, 공무원의 생존권 쟁취와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라!